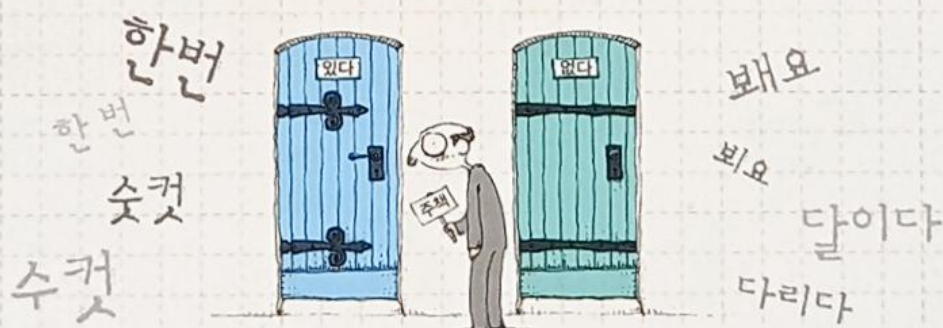


한 국 어 · 사 용 자 의 · 필 수 · 교 양

김남미
지음

100명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2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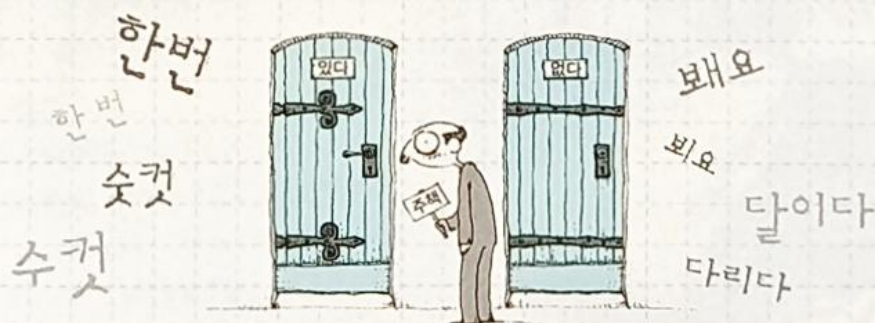
“정확하고 품격 있는 우리말을 구사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일과 삶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된다”

나무의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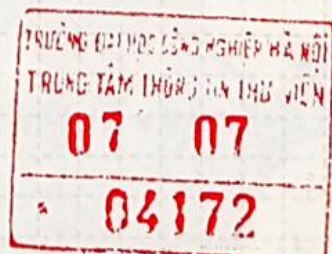
한 국 어 · 사 용 자 의 · 필 수 · 교 양

김남미
지음

100명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²



나무철학



• 이 책에서 *표기는 틀린 표현을 의미합니다.

02130



육구시타르타 찾습니다

이름: 오동동(숫컷)

나이: 네댓 살

지난 주말,
집이 부쩍부쩍거리던 도중
마당 한켠에 묶어두었던 동동이
집을 나갔습니다. 커가 꽤 큰 편이며
요즘 미모가 일치얼짱해지고 있습니다.
동동이를 보신 분은 가능한 빨리
전화주세요. 동동이는 식탐이 많아서
몇일만 굶어도 헬썹해집니다.
찾아주시면 댓가를 꼭 치루겠습니다.
연락처 : 010-xxx-xxxx



맞춤법은 오늘로 변하고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사고하는 일이다. 사고를 마치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써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이 책을 쓰면서 이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언제든 글을 시작할 때면 머릿속에 텅 빈 백지 한 장이 들어 있다. 아무 것도 계획되지 않고 아무 내용도 생각나지 않는다. 도무지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예면글면 한 글자씩 쓰기 시작해 항목이 몇 개로 늘어나면 비로소 뭔가 구획이 생긴다.

그때야 내가 쓴 글의 질서를 되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나는 어떤 질서를 만들고 싶은지, 그 질서가 사람들이 보기에 유효한지 등등. 그때부터 틀을 잡고 그 틀을 수정해 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요사이 국내외 글쓰기 학계에서 강조하는 화두가 있다. 글

쓰기는 다시 쓰기라는 말이다. 글은 완성한 후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써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맞춤법은 언어적 복잡성의 총화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자체가 복잡하다. 거기에 과거의 말들이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 복잡성을 더한다. 게다가 우리의 말은 지금도 미래를 향해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언어의 복잡성을 규범으로 지정한 것이 표준어다.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쓸 뿐만 아니라 어법에도 맞추어 적는 것이니 그 복잡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맞춤법은 때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다.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1》을 내고 다시는 맞춤법과 대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맞춤법을 설명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책을 낸 것조차 후회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 부족한 책이 뜻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영광이 내 것이 아닌 듯만 하여 지금까지도 쑥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하나는 내세울 수 있다. 그 사랑과 작은 영광은 내가 맞춤법에 대해 더 생각해도 좋다는 그래서 글을 써도 좋다는 허가임을. 그래서 글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상태에서 벗어나 맞춤법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태 즉 글을 쓰기 싫다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의 기회들이 자주 생긴다. 이른바 마감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내가 맞춤법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사람들과 마감이라는 시간 덕분에 이 책이 나왔다. 결국

'Writing is Thinking'이라는 화두를 실행한 덕분에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이 나왔다는 자체보다도 외면하고 싶었던 맞춤법을 정면 대응하고 이에 대해 깊이 사고할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한다.

이미 이루어 낸 사고는 언제든 되돌아보고 수정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생각이 깊어진다. 내 책도 그렇다. 나는 여전히 'Writing is Rewriting'의 단계를 수행하는 중이다. 이 말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어 준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수용, 동시에 틀린 내 생각을 스스로 개선할 각오, 그리고 그 수정에 열정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이 또다시 책을 쓸 수 있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

원고를 마친 이 지점에는 새로운 재미가 있다. 머리말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재미다. 이 순간에 나는 내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늘 그렇듯 이 책은 혼자 쓰지 않았다. 내가 책을 쓸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까칠하면서도 욕심 많은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그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목록을 전하기에는 어휘가 너무 적지만 이름이라도 밝히려 한다.

정말 행복하게도 내게는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친구들이 많다. 내 자랑스러운 친구이자 주치 약사 최경순. 종강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물려드는 마감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의약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한다. 늘 옆에 붙어 있는 것만 같은 신명희, 조은경, 이은영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내가 책을 내는 것을 자신의 일만큼이나 자랑스러워 해 주는

내 소중한 친구들, 너희들과 함께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지금 여기가 정말 행복하다고.

가끔 여자는 여자 형제가 있는지의 여부로 나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언니들 덕분에 험악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다. 내 삶에 위로와 지침을 주는 김남옥, 이부순, 장소진에게 내 언니가 되어 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마흔이 넘어도 여전히 내게는 작은 동생인, 그래서 언제든 같이 살아야 할 것만 같은 내 여동생 김레시라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아주 최근에 자랑스러운, 닳고 싶은 새 친구들이 생겼다. 그들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게 문득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많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김미란, 김성숙 선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5년 초겨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생전에 내가 낸 책을 보시고 묵묵한 웃음으로 오래 시선을 주시던 내 아버지. 험한 상황을 겪었던 딸에게 3년 만에야 이제는 괜찮으냐고 물으시던, 그 아버지의 진중함이 오늘 사무치게 그립다. 그 그리움을 담아 내 아버지 김철기 선생님께 이 책을 바친다.

2015년 8월 김남미

들어가며 맞춤법은 오늘도 변하고 있다

6

1 장

맞춤법 달인이 되기 위한 길라잡이

1	음절의 끝소리 현상	19
2	연음법칙	23
3	두음법칙	28
4	된소리되기 현상	34
5	자음군 단순화	38
6	자음동화, 모음동화, 자음모음동화	42
7	유음화	46
8	활음화	51

2장

쓸수록 헛갈리는 한글 맞춤법

1	숫양 vs *숫소	61
2	배요 vs *뵤요	69
3	받아들이다 vs *받아드리다	74
4	떠나려고 vs *떠날려고	79
5	예사소리 vs *예삿소리	83
6	텔레비전 vs *텔레비전	89
7	삼가다 vs *삼가하다	95

3장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말

1	있다가 vs 이따가	105
2	장수 vs 장사	110
3	띄다 vs 띄우다 vs 떠다	116
4	박이다 vs 박히다	123
5	가늘다 vs 얇다	130
6	달이다 vs 다리다	136
7	줄이다 vs 조리다	141
8	운명 vs 유명	145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2

1판 1쇄 발행 2015년 8월 3일

1판 6쇄 발행 2019년 6월 7일

지은이 김남미

발행인 오영진 김진갑

발행처 나무의철학

기획편집 이다희 박수진 김율리 박은화 허재희

디자인팀 안윤민 김현주

마케팅 박시현 신하은 박준서

경영지원 이해선

출판등록 2006년 1월 11일 제313-2006-15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12 서교빌딩 2층

전화 02-332-3310 팩스 02-332-7741

블로그 blog.naver.com/midnightbookstore

페이스북 www.facebook.com/tornadobook

ISBN 979-11-5851-004-6 14710

979-11-5851-003-9 14710(set)

나무의철학은 토네이도미디어그룹(주)의 자회사입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나무의철학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되거나 파손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드립니다.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2013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1》의 실전편!

“정확한 국어 실력이 곧 당신의 경쟁력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소통의 창구가 다변화되면서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가 곧 우리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젊은 사회인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파괴적 언어를 보며 속이 쓰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 품격 있는 국어 생활에 대해 연구해 온 김남미 교수가 펴낸 두 번째 맞춤법 책이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여러분도 우리말의 풍부한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

엄태수(서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연을 할 때마다 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다.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는데 바로 정답, 공짜, 영원한 것이라고. 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말과 글에는 결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모해 온 수준 있는 우리말 맞춤법이 담겨 있다. 전작은 물론이고 이번 책에서도 국어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해 온 저자의 위트와 재기발랄함이 넘쳐흐른다. 그녀의 다음 책이 더욱 기다려진다.

김벌아(소설가)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1》을 통해 바른 국어 생활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 준 김남미 교수가 두 번째 책을 펴냈다. 단순히 맞춤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말이 가진 놀랍고 신비로운 규칙을 따라가는 모험과도 같은 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말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보물 같은 책이다.

엄성환(한글학회 이사) 서경대 교수



14710

값 14,000원

979-11-5851-004-6

979-11-5851-003-9 (set)